

(무)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무)알리안츠A+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무)알리안츠파워밸런스PLUS변액연금보험/(무)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무)하모니변액연금보험/(무)하모니변액연금보험_알리안츠생명_A+GA/(무)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PLUS(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무)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무)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무)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무)알리안츠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무)알리안츠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V06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7.05.12
운용기간	2017.10.01 ~ 2017.12.31	종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종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목적은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무)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자산 총액 (A)	291	358	22.83
	부채 총액 (B)	0	0	0.00
	순자산총액 (C=A-B)	291	357	22.8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89	353	22.16
	기준가격 (E=C/D×1000)	1,007.45	1,012.88	0.54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017년 4분기 초 글로벌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세계개편안의 점진적 진행, 사이클 최고치를 기록한 제조업 PMI 등 미국 경기 확장세 지속 확인,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의 호조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카탈루냐 독립 추진을 놓고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지방 정부의 갈등에 지정학적 리스크 압박을 받았으나 글로벌 및 유럽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기업 실적이 이를 뒷받침한 가운데, 월말 ECB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채 금리의 경우, 미연준의 자산총액상회 및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 우려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출 부담이 높은 몇몇 인프라 자산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9월에 T-mobile과 Sprint간 merger 가능성으로 하락세를 보인 통신타워 인프라 섹터의 경우 10월 들어 합병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동 펀드 보유 섹터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산유국의 감산합의 연장과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하락세를 보이고 파이프라인 섹터 몇몇 기업들의 부채 관련 우려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섹터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월에도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지속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월초 금리 곡선 평탄화 우려가 높아지고, 중국의 산업생산 및 고정자산 투자 등이 부진하여 소재, 에너지 업종의 수요 우려까지 더해지며 증시가 압박을 받았으나, 월 중반 이후 미 하원의 세계 개편안 통과, 추수감사절 소비 진작 효과와 더불어 월말 상원에서 세계 개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및 규제 완화 입장을 확인 등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선진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마르켈 독일 총리의 연정 구성 실패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와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 그리고 기초 금속 가격의 부진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산유국의 감산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파이프라인 섹터 내 몇몇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섹터내 편입비중이 가장 높은 Enbridge가 기준에 발표했던 배당률 인상계획과 관련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투자자 실망감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동 섹터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2월 미국 기준 금리 인상 기대는 강화되며 단기금리는 상승하였으나 물가와 세계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장기 금리는 하락하며 미국 채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장기금리 하락에 따라 금리 민감 섹터인 통신타워인프라와 유틸리티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12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품가격의 상승 탄력이 더해지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증시는 건조한 경기지표와 세계개편안 통과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럽 증시는 미국의 세계개편안과 글로벌 경기 호조 영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연정 실패 가능성,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 이슈, 이탈리아 선거 불확실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감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난방시즌 진입과 리비아의 파이프라인 폭발로 수급이 개선되며 상승한 유가에 힘입어 파이프라인 섹터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12월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하며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 통신타워인프라 섹터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글로벌 경제는 2016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전개돼, 작년 들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에서 선순환 흐름이 전개됐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아시아 신흥국에 이어 러시아, 브라질 등 상품부국 신흥국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요 개선이 목격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지는 주요국 경기는 안정적 흐름이 예상돼, 올 1분기 글로벌 경제 상승세 강화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사분기부터 2분기 연속 3%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4사분기에도 3% 내외 성장세가 예상되며, 각종 선행지표와 감세안 확정까지 감안 시 1사분기에도 2%대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유로존 경기 여건 역시 긍정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했으며, 제조업 PMI가 60을 넘는 호조세가 2개월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물가상승과 연계된 매출구조를 지닌 인프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세계개편안 통과 이후 국정과제 일환으로서, 인프라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는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동 펀드에서 편입한 소재 기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세계개편안과 경기부양책과 관련하여 미국 부채 부담 증가, 그리고 미국 채 매도에 따른 금리 상승압력은 우려감으로 존재합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무)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0.54	1.56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6)	(-0.47)	-	-
비교지수(벤치마크)	0.38	2.03	0.00	0.00

※ 비교지수(벤치마크) : Dow Jones Global Infrastructure Total Return Index USD Hedged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무)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	-	-	-
비교지수(벤치마크)	0.00	0.00	0.00	0.00

※ 비교지수(벤치마크) : Dow Jones Global Infrastructure Total Return Index USD Hedged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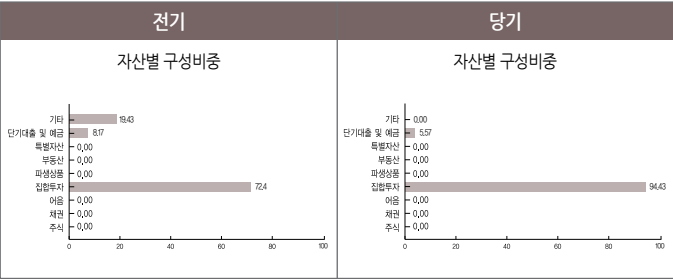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0	0	-1	0	0	0	0	0	0	0	-1
당기	0	0	0	-3	0	0	0	0	0	0	-1	-4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00)	0 (0.00)	0 (0.00)	338 (94.4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 (5.57)	0 (0.00)	358 (100.00)
합계	0	0	0	338	0	0	0	0	0	20	0	358

※ () : 구성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17.12.31)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17.10.01 ~ 17.12.31)	환헤지로 인한 손익 (17.10.01 ~ 17.12.31)
90	95.4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한 유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해나UBS글로벌인프라증권(주식)CF	6		
2	단기상품	은대(국민은행)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최소,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해나UBS글로벌인프라증권(주식)CF	주식형	해나UBS자산운용	339	338	대한민국	KRW	94.4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국민은행	2017-05-12	20	1.15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11	0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2	0	0.1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서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보수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689	0	0.4689
당기	0.4634	0	0.463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5.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율**

(단위 :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0	0	0	0	0.00	0.00

※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율 추이**

(단위 : %)

2017-04-01 ~ 2017-06-30	2017-07-01 ~ 2017-09-30	2017-10-01 ~ 2017-12-31
0.00	0.00	0.00

6.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억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현구	부서장	48	72	20,911	-	-	2111000044
남정은	과장	33	72	20,911	-	-	210900150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각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